

한국의 자료조직 교육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A New Direction in Korea's LIS Education: Focused on the Field of Information Organization

노 지 현(Jee-Hyun Rho)**

< 목 차 >

- | | |
|---------------------------------------|-------------------------|
| I. 논의를 시작하며 | 2. 자료조직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내용 |
| II.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자료조직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 | III. 미국 자료조직 교육의 방향과 내용 |
| 1. 자료조직 교과목의 비중과 구성 | IV. 한국 자료조직 교육의 방향 모색 |
| | V. 논의를 마치며 |

초 록

이 연구는 도서관에서 간접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로 여겨지는 '자료조직'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이 영역의 교육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발제로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전국의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자료조직 교과목의 비중과 교육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어, 우리 학문의 원조가 되어 온 미국의 문헌정보학계에서 진행되어온 자료조직 영역의 교육목표와 기본방향, 그리고 내용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자료조직과 관련한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논의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는 기존의 국내의 연구는 물론이고, 전국 3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교과과정과 강의개요, 그리고 북미의 주요 문헌정보대학원의 교육목표와 내용 등을 활용하였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교육,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자료조직 교육, 목록 교육, 정보조직, 편목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Korea's LIS education focused on the field of 'information organization' in detail. Emphasis was on analyzing the current curriculum in Korea's LIS school and on discussing facing problems and new directions in the education of the field. To the end, this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exhaustively the course contents and instruction of the related courses in 32 Korea's LIS schools, and the research papers related to LIS education, especially information organization's education. In addition, American LIS education was analyzed to compare with Korea'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LIS school education should emerged from excessive emphasis on practical skills and concentrate on the philosophy, principles and the implicit values of information organization.

Keywords: LIS Education, LIS Curriculum, LIS Courses, Education for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for Cataloging, Cataloging Career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rho@pusan.ac.kr)

• 접수일: 2011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1년 3월 9일 • 최종심사일: 2011년 3월 28일

I. 논의를 시작하며

서구식 도서관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고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학문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근자에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거론되는 것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양이나 질에서 부실한 것 같지는 않다. 개설 교과목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은 물론이고, 내용 또한 도서관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과제를 잔뜩 안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교육방식과 체계가 우리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부조화, 즉 교육에 대한 학계의 입장과 현장의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학계도 현장도 건강한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 학문이 추상적인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현장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교육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그간 학계가 교육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왔는지, 더불어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적 역할과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학계와 현장이 함께 나서서 우리의 교육에 대해 진솔한 논의를 시작하고, 교육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은 우리 학계와 현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에서 간접적이고 기술적인 업무(technical service)로 여겨지는 자료조직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이 영역의 교육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발제로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 그 중에서 자료조직과 관련한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우리의 교육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에 붙어 닦친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대학의 교육과정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기본적으로 학부 졸업에 요구되는 이수 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점차 줄어들더니 급기야 130학점 가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더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초소양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복수전공제'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 시행은 전공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30-3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만을 이수하

고도 대학졸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보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 이러한 대학교육의 현실은 '전문직'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을 포함하여 많은 대학들의 졸업 기준에 명시된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은 36점에 불과하다.²⁾ 이것은 기초과목을 제외하고, 12과목에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의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자격시험과 같은 자격검정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서직의 경우,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 모두에게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타 학과의 학생이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직 자격의 요건을 대학교육의 이수 여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의 전공 교육조차 이렇듯 과행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얼떨결에 '사서'라는 이름표를 달고 도서관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폐해를 막기 위해 필자의 학과에서는 급기야 '학과 차원'에서 극약처방을 마련하였다. 필수 이수과목은 물론이고 교과목별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다양한 전공 지식을 함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교직의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심화전공, 즉 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2급 정사서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이렇게라도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을 이끌어갈 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졸업 때마다 '자격증'을 놓고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이요, 교육의 산실인 대학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서관 현장에서는 신참 사서들이 4년 동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기반이 허약하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참 사서에게 업무를 맡기기 위해 도서관에서 처음부터 새로이 교육을 시키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교육기관을 원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교육체계 속에서 보다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방식과 내용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1)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20년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30개 대학의 졸업요건에 명시된 전공 교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평균 64학점이었다. 이처럼 복수전공제에 따른 최소전공제의 시행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전공 교육을 저해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정진식,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분석과 모형개발," 국회도서관보, 통권218호(1991. 11·12), p.8).

2) 2010년 현재 전국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을 조사한 결과, 비록 일부 대학에 불과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기준을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심화전공의 경우 6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몇몇 대학의 경우 30-36학점에 불과하였던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을 42-45학점으로 늘려가고 있다.

데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문헌정보학 교육 영역 중에서 '자료조직'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더불어 이 영역의 교육방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의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자료조직 교과목의 비중과 교육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내용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현재의 교육내용과 체계가 과연 적절한지를 가늠해 보는데 기초 단서로 활용될 것이다. 이어, 우리 학문의 원조가 되어 온 미국의 문헌정보학계에서 진행되어온 자료조직 영역의 교육목표와 기본방향, 그리고 내용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 보면서 자료조직과 관련한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논의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물론이고, 전국 3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나사렛대학 점자문헌정보학과 제외)의 2010년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그리고 북미의 주요 문헌정보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였다.

II.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자료조직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

1. 자료조직 교과목의 비중과 구성

전국의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을 조사한 결과, 2010년 현재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평균 32.4개에 이르고 있다.³⁾ 이 가운데 자료조직과 관련된 교과목은 적게는 2과목부터 많게는 7과목까지, 평균 4.44과목(전체의 13.7%)이 개설되어 있다. 교과목의 명칭에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표 1>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대학들이 '분류'와 '편목'에 해당하는 기초이론 과목을 각각 1과목씩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습 교과목도 별도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고문헌의 조직이나 특수자료(혹은 비도서자료)의 조직 등 특정 자료에 대한 조직 이론과 실습을 다루는 교과목은 물론이고, 색인 및 초록 작성이나 메타데이터 등과 같은 교과목도 개설하고 있다. 이들 교과목은 주로 2학년 1학기(일부 대학의 경우 1학년 2학기)부터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심화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은 고학년에 배치되어 문헌정보학 내의 타 영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관련 교과목의 수직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3) 개설교과목 중에서 문헌정보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양교과목이나 진로지도, 전공상담, 졸업평가 등의 교과목은 제외한 수치임.

〈표 1〉 32개 문헌정보학과의 자료조직 영역 교과목의 구성

구분		개설 교과목의 수		필수 교과목의 수	
기초이론	분류	31	67	14	28
	편목	35		13	
	분류+편목	1		1	
실습	자료조직 실습 ⁴⁾	30		0	
심화	고문헌조직	12	45	0	0
	비도서 및 특수자료조직	8		0	
	색인 및 초록	15		0	
	메타데이터	8		0	
	자료조직 특강	2		0	
계		142(평균 4.44)		28(평균 0.88)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⁵⁾나 1990년대,⁶⁾ 2000년대 초반⁷⁾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자료조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5%를 차지하여 왔으며, '분류'와 '편목'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목의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개설 교과목 중에서 '필수' 교과목의 비중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가령 1991년의 경우 자료조직 관련 교과목 중에서 45.1%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운용된 반면, 2010년 현재에는 총 142개 교과목 중에서 19.7%에 해당하는 단 28과목(학교당 평균 0.88과목)만이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⁸⁾ 그동안 자료조직 영역이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나아가 사서의 채용 및 승진을 위해 '자료조직' 교과목을 여전히 '필수' 시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전혀 뜻밖이라 할 수 있다.⁹⁾

4) 교과목명이 '자료조직' 또는 '정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분류나 편목 실습이 이루어지는 교과목도 포함한 수치임.
 5) 엄영애,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409-427.
 6) 정진식, 전개논문.
 7) 노영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전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479-503. ; 노영희, 안인자,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변화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429-450.
 8) 이러한 경향은 우리 문헌정보학 교육의 모델이 되어온 미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최근 미국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필수 교과목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핵심영역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경향도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Russell A. Hall, "Exploring the core: an examination of required courses in ALA-accredited,"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27, No.1(2009), pp.57-67. ; K. Markey, "Current educ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5, No.4 (2004), pp.317-339.
 9) 필수 교과목의 비중이 이처럼 낮은 일차적 원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대학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대학들이 복수전공 또는 최소전공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공 교과목에서 '필수 이수과목 제도'를 폐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전국의 32개 문헌정보학과 중에서도 무려 14개에 이르는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에 필수 이수 과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도서관 관련법에서는 사서직의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과 '필수 이수 과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2급 정사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자료조직론(Ⅰ)'과 '자료조직론(Ⅱ)'을 포함하고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전국의 32개 문헌정보학과 중에서도 무려 14개에 이르는 문헌정보학과에서 필수 이수 과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학과들 중에서도 최소한의 교과목만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히 교육기관으로서의 직분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교육기준조차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정황이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자료조직의 기본 원리와 가치는 물론이고, 분류와 목록에 대한 기초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도서관 현장에 진출하는 신입사서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사서들의 푸념¹¹⁾을 교육기관에 대한 그들의 단순한 불만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한편, '분류'와 '편목'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목의 구성은 우리의 대학과정에 문헌정보학(당시의 도서관학)이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드러진 변화가 없지만, 교과목의 명칭에 있어서만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교과목의 명칭과 관련한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무엇보다도 용어가 가지는 개념적 모호성 혹은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자료조직 영역의 교과목 명칭에서는 '목록학', '...목록법', '...목록론' 등과 같이 '-학', '-법', '-론' 등의 용어가 특히 많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또한, 동일 교과목을 지칭하는 용어도 상당히 다양한데,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조직', '정보조직', '정보자료조직', '지식조직' 등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분류'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명칭만 하더라도 '문헌분류', '정보분류', '자료분류', '정보자료분류', '지식분류' 또는 편목 교과목과의 연계를 위해 '자료조직Ⅰ', '정보조직법Ⅰ', '지식관리론Ⅰ'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정보자료조직론'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학에서는 목록을 다루는 교과목의 명칭으로, 또 다른 대학에서는 실습 교과목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교과목의 명칭이 가지는 고유성이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¹³⁾

10)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9호, 명시된 교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의미한다.

11) 박현영, "도서관 현장에서의 장서개발과 편목업무를 통해 본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 201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2010. 12), pp.25-39.

12) 일반적으로 '-학'은 특정 '학문'을 지칭할 때, '-론'은 세부적인 '학문 분야'를 지칭할 때, 그리고 '-법'은 '방법이나 규칙'의 뜻을 더할 때 덧붙이는 접미사로 사용한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인용 2011. 2. 10]). 이러한 의미를 통해 유추해보면, 문헌정보학 내 자료조직 영역의 교과목 명칭에는 '-學'보다는 '-論'이나 '-法'이 적합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교재에서도 "목록과 목록학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목록은 정보자료의 검색용 도구이지만, 목록학은 중국의 한대 말기에 출현한 학문의 명칭으로서 ...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헌정보학의 원류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목록과 목록학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목록조직의 이론과 실제(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p.12)라고 설명하고 있어 '목록학' 또는 '분류학'이라는 용어는 교과목의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3) 자료조직과 관련한 교과과정이나 교과목의 명칭에 대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와 재정의가 시급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문헌정보대학

이에 더해,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과목의 명칭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정보’字에 대한 선호도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에 연세대와 서울여대(‘정보조직론’), 중앙대(‘정보자료목록법’)에 등장¹⁴⁾하기 시작한 ‘정보’字자는 2004년에 이르러 건국대, 공주대, 덕성여대 등 11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2010년 현재에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교과목의 명칭에 ‘정보’字를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자료조직’이라는 용어는 이제 소수의 용어로 전락하고 ‘정보조직’ 또는 ‘정보자료조직’이 다수의 용어로 등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학문의 명칭이 문헌정보학으로 개칭된 1992년 이후에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목의 명칭이 ‘자료조직’에서 ‘정보조직’으로 변경되었지만,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에 걸맞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다음의 교육목표와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교과목의 명칭이 얼마나 모호하고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표 2〉 동일 교과목에 대한 상이한 명칭의 사례

분류(classification) 교과목명	편목(cataloging) 교과목명
정보조직(론/법) I (4) 자료조직(론) I (2) 정보자료조직(론) I (1) 분류(학/법)(4) 문헌분류(론/법)(6) 정보자료분류(론/법)(6) 정보분류(론)(2) 자료분류(론/법)(3) 기타: 지식분류론, 정보분류체계론, 지식관리론, 지식조직론 등	정보조직(론/법) II (5) 자료조직(론) II (2) 정보자료조직(론)(4) 목록(학/법)(5) 문헌목록(학/론/법)(5) 목록조직(론)(2) 정보목록(론)(2) 정보자료목록(법)(2) 기타: 정보자료편목론, 목록편성론, 정보조직체계론, 자료편목론, 자료목록론 등

* ()안은 해당 교과목의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의 수임.

원에서는 ‘분류’와 ‘편목’ 교과목에 앞서 ‘Information organization’(자료조직/정보조직/정보자료조직)이라는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으며,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3rd ed.)과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10th ed.)이라는 교재를 별도로 편찬해 오고 Arlene Taylor도 이들 개념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Taylor에 따르면 Information organization은 “다양한 사물이나 자료에 적용되는 조직의 개념과 역할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분류나 편목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다루며,” “모든 유형의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조직의 이론, 원리, 표준, 틀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Arlene G. Taylor,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3rd ed.(Westport : Libraries Unlimited, 2008), pp.xxi-xxii.) 그러나 우리의 경우 관련 교과목의 명칭에서는 물론이고 대학 교재에서조차 이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 용어 재정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4) 김성수,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1998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1998. 6), pp.76-80.

2. 자료조직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내용

솔직히 고백하자면, 대학 강단에서 자료조직 강의를 담당한 지 8년차에 접어든 필자에게 ‘자료조직 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사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적 기반과 원리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학문의 특성상 실무차원의 교육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학들은 교육자의 길에 갓 들어선 필자에게 이렇게 충고한 바 있다. “현장의 적용이나 실무기술만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이론과 기본 원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러나 이를 따르자니 학생들의 실무적응능력이 뒤떨어질 것만 같아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사서 채용을 앞두고 당장 관련 교과목의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필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무의 적절한 조화’를 실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정을 하고서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은 물론이고 자료조직 교육을 다루고 있는 글들 중에서, ‘무엇을, 왜 교육해야 하는지’를 언급한 부분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문헌정보학 교육을 다룬 연구는 수십 편에 이르고 있었으나 자료조직 교육을 테마로 한 국내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내용 또한 우리 학계와 우리의 도서관 현장에 적합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도서관 선진국의 상황이나 연구결과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었다.¹⁵⁾ 이러한 경향은 정보봉사 영역에서, 정보봉사가 갖는 의미와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었다.¹⁶⁾ 이러한 연구를 제외하고 참조할 만한 연구로는 ‘현장 사서’의 관점에서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 사서들이 생각하는 자료조직 교육의 방향과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부분 정도였다.¹⁷⁾ 그러나 현장 사서의 관점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을 짚고 있어 이를 통해 자료조직 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었다.

이쯤에서 우리의 교육 현실로 다시 눈을 돌려, 32개 문헌정보학과에서 자료조직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32개 문헌정보학과에서 제시한 각 교과목별 강의개요를 활용하였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영역에 대한 교육의 목표

15) 정연경, “목록사서직의 자격요건과 목록교육의 방향 :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999. 8), pp.67-70. ; 조재인, “차세대 목록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6), pp.127-145.

16) 이제환, “한국 문헌정보학에서 참고봉사와 정보봉사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12), pp.299-323. ; 박준식, “정보봉사의 속성과 철학적 기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6), pp.61-80.

17) 이 연구는 현장 사서들의 관점에서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을 평가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서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들 영역에서 사서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지식기반과 실무기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6가지 영역에는 장서관리(장서개발)와 자료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환 등,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5. 12), pp.45-69.

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다음의 강의개요를 살펴보자.

A대학의 '정보조직론' : 자료조직에 관한 기초이론과 각종 형태의 자료에 따른 목록작성의 실례를 상세히 다루어 편목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도서관 자료의 검색을 위한 편목의 이론과 실례를 다루며 온라인 목록화에 따른 MARC 형태의 목록구축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운영능력을 기른다.

B대학의 '정보자료조직론' :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목록법의 역사와 이론을 연구하고 목록의 기술법으로 한국목록규칙인 KCR에 의해 카드목록과 온라인목록 작성을 실제 연습한다. 교과목의 목적은 전문사서직으로 필수적 기술인 자료의 편목기술을 습득하는데 있다. 정리사서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목록학의 이론적 배경지식을 배우도록 한다. 국제표준편목규칙인 ISBD에 기초하여 제정된 동서목록규칙 KCR4로 동서 단행본 자료를 편목할 수 있도록 한다. KORMARC로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C대학의 '문헌목록론' : 도서관 자료의 검색을 위한 목록법의 이론과 실제, 목록의 역사, 목록의 기입법과 기술론을 학습하고, 편목을 위한 동서양의 자료의 실제 편목을 작성하고, AACR, KCR, ISBD, KORMARC 등의 편목법에 대한 연구와 작성법을 학습한다.

교과목별 강의개요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분석이라는 한계를 분명 가지고 있지만, 각 대학의 강의개요를 살펴보면, 우선 교과목의 명칭과는 무관하게 거의 모두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가령, 위의 3개 학과의 경우 '정보조직론'과 '정보자료조직론', 그리고 '문헌목록론'과 같이 교과목의 명칭이 상이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 교과목은 모두 '도서관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편목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이론과 기술'을 다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목록작성', '목록구축', '편목업무', '편목기술' 등과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러한 경향은 자료조직 영역의 타 교과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듯 실습 교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직 영역의 기초이론에 해당하

18) 각 대학의 강의요목에 소개된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키워드는 교과목의 명칭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역	핵심 키워드
분류	분류이론, 분류역사, 분류규정, 분류정책, 자료분류의 원리, 분류표의 유형, 분류표의 특성, 분류표의 구성과 사용법, DDC 분류법, KDC 분류법, 분류표 사용법, 분류실습, 분류연습, 도서기호, 주제명표목표, 실제적인 정리 능력
편목	목록이론, 목록의 역사, 서지기술, 목록기술, 표목선정, 목록규칙, ISBD, AACR, KCR, MARC, KORMARC, US MARC, FRBR, Dublin Core, 목록작성의 실례, 편목능력, 편목작업, 편목훈련, 기술목록의 작성 능력, 편목실제, 목록시스템의 사용법

는 교과목에서조차 특정 분류표(KDC, DDC, LCC 등)의 사용법이나 특정 목록규칙(AACR, KCR 등)에 근거한 서지기술법, MARC를 이용한 목록작성법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영역의 교육에서 실무나 기능적인 것에 대한 비중이 아주 높음을 방증한다. 이에 반해, 이들 교과목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즉 자료조직의 기본이 되는 공통이론이나 원리, '이용자' 혹은 '자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분류와 관련된 교과목에서도 자료의 핵심과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교육도 없이 특정 분류표의 구성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교육내용에는 이론보다는 '현장의 적용'이, 그리고 철학보다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무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지식을 전수하는데 치우쳐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물론 우리 학문의 특성상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이며 수동적인 지식만을 주입하여 궁극적으로 '전문직 사서'가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사서에게 요구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과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들은 교육을 통해 실무를 수행할 만한 실질적인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 것일까?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니, 현장 사서들은 "교과의 내용이 현장의 업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으며", "사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교과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¹⁹⁾ 한마디로 말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 능력을 제공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문헌정보학의 모델이 되어온 미국의 교육기관에서는 자료조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Ⅲ. 미국 자료조직 교육의 방향과 내용

우리의 사례와 달리, 미국 문헌정보학계에서는 교육기관의 교육목표나 내용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중에서 자료조직과 관련한 논의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도서관협회 내의 분과협의체인 ALCTS(Association for Library Collections and Technical Services)에서 발표한 권고조항이다. 이 권고조항에는 자료조직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내용은 관련 업무나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현장사서들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논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²⁰⁾

19) 박현영, 전계논문. ; 이제환 등, 전계논문. ; 김종성,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의 전략적 강조점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6), pp.135-159 등.

자료조직 교육의 목표는 사서직의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두어야 한다. 즉, 전문직의 가치에 대해 교육하고, 실제에 내재된 이론을 강조하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 주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계속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²¹⁾

관련 단체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기본방향은 이렇듯 사서의 직무에 요구되는 실무기술이나 기능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이론적 기반'과 '철학'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본 자료는 미국도서관협회에서 교육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발간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교육기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의 영역과 영역별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9년 발표 내용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기본 영역을 ① 전문직 기초, ② 장서관리, ③ 자료조직, ④ 정보기술, ⑤ 참고서비스, ⑥ 연구역량 강화, ⑦ 계속교육, ⑧ 도서관 및 정보센터 경영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²²⁾ 여기에는 각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전문직 기초' 영역에서는 사서가 가져야 할 공통적인 업무태도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 역할, 능력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영역에서는 해당 영역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전문직의 기초와 자료조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ALA에서 제시한 영역별 교육내용

영역	교육의 내용
전문직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 윤리와 가치 • 민주주의 원칙과 지적자유의 증진을 위한 전문직 역할 • 도서관과 사서직의 역사 •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도서관의 역할 •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료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자원의 조직에 내재된 원리 • 정보자원의 조직에 관한 실무기술 • 관련 시스템(편목, 분류, 색인, 메타데이터)과 사용법

20) 이 내용은 ALCTS 이사회에서 1995년에 승인한 것인데, 최근 이 내용의 수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ALCTS는 자료선정, 입수, 분류, 편목,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사서들과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문헌정보학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1957년에 창설되어, 관련 업무의 개발과 연구성과의 축적 및 보급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약 5,000명의 회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 중이다.

21) ALCTS(Association for Library Collection & Technical Services), *Educational policy statement*(ALCTS, 1995), <<http://www.ala.org/ala/mgrps/divs/alcts/about/governance/policies/cepolicy.cfm>> [cited 2010. 11. 15].

22) ALA, "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 Final version(2009),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careers/corecomp/corecompetences/finalcorecompstat09.pdf>> [cited 2010. 11. 15].

앞서 ALCTS에 제시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라면, ALA의 가이드라인은 세부 영역별 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령, 자료조직 영역에서 교육해야 할 내용은 앞서 언급한 전문직 기초 영역에 대한 교육에 덧붙여 자료조직의 이론과 원리, 실무기술, 그리고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이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특정 분류표의 사용능력이나 청구기호의 생성, MARC 레코드의 작성 등이 아니라 이러한 실무가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과 기법,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ALA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실무능력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교육기관에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ALCTS에서는 ‘자료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기반(knowledge)과 실무기술(skills)’도 제시하고 있어 관련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참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²³⁾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되는데, 자료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능력은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라는 점이다. 자료조직 업무의 출발점을 이렇듯 ‘이용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용자 중심적 업무 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료조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의 최근 동향이나 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업무를 분석하는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사서가 갖추어야 할 주요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 ALCTS에서 제시한 사서의 지식기반과 실무기술

업무 영역	지식기반과 실무기술
자료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그룹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지식 • 정보제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 국가/국제표준을 포함하는 정보조직의 이론 • 주제분석의 이론과 방법 • 자료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식별하기 위한 이론과 기법 • 통제어휘의 개발과 운용 • 검색의 효율(정확율과 재현율)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 • 서지적 관계에 관한 지식 • 편목 도구와 이에 대한 사용법 • 다른 부서의 업무 활동과 자료조직 업무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 정보검색시스템의 평가 능력 •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리에 대한 지식 • 이용자 중심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에 대한 기본원리와 기법 • 관련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과 업무동향에 대한 지식

23) ALCTS, *op. cit.*

이렇듯 우리의 모델이 되어온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다. 도서관협회나 관련 단체가 나서서 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사서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배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선의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예비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다시 도서관협회는 ‘교육인증제’를 통해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서관 현장의 발전은 ‘사람’에서부터 나오며, 사람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은 교육기관과 도서관계 ‘공동’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도서관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 다음으로는 미국의 주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자료조직 관련 교과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문헌정보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관련 교과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Organization of Information -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 Advanced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등의 순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Classification Theory, Cataloging Theory, Technical Services Functions, Cataloging of Nonprint Materials, Seminars in Information Organization, Metadata Standards and Application 등의 심화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각 영역별 심화교육을 원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의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의 강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자.²⁴⁾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Access : 다양한 환경이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조직과 접근에 대해 다룬다. 지식의 생성에서부터 저장과 이용까지 정보전달의 전체적인 과정을 추적한다. 정보 선택과 보존, 검색과 디스플레이를 위해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활동,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정보요구와 관련된 이론(원리)과 실제를 다룬다.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I : 기술편목(descriptive cataloging)과 주제편목(subject cataloging)의 기본원리 및 주요 개념을 둘러싼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목록 생성의 방법과 목록기입요소에 대해 강조한다. 표목의 선정과 기술, 서지기술, DDC와 LCC 분류시스템, LCSH 등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beginning level)의 경험을 제공한다.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II : 도서관목록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깊은 문제에 대해 다룬다.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 다양한 주제의 자료에 대한 편목작업을

24) University of Illinois Home page, <<http://www.lis.illinois.edu/academics/courses>> [cited 2011. 1. 30].

수행하는데 있어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Technical Services Functions : 모든 유형의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수집, 조직, 보존 등 기술적인 업무에 내재한 원리와 당면 과제, 추세, 주요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의 내용은 비록 한 대학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ALA에서 인증하는 미국의 주요 LIS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LIS 교육프로그램에 개설되어 있는 자료조직 영역의 교과목은 입문에 해당하는 'Information Organization'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교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기록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이론과 자료유형별 특징, 그리고 정보수요자의 요구 등이다. 정보조직이 수행되는 제 과정과 다른 영역(또는 업무)과의 관계 혹은 이 영역이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어떻게 부응하게 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보조직이 근간하고 있는 철학과 원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랄 수 있다. 이러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다음에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분류와 목록(편목)을 다루는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과 'Advanced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은 'Information Organization'과 더불어 LIS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 교과목에 해당한다.

한편, 'Advanced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라는 교과목부터 시작되는 심화교과목은 주로 편목사서(cataloger)가 되기를 원하거나 이 영역에 특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교과목이다. 이들 교과목에 대한 교육의 기회는 'Information Organization'과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과 같은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며, 편목사서에게 필수적인 classification web이나 cataloger's desktop, OCLC cataloging system의 사용법 등과 같이 실무 중심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도서관 현장을 둘러싼 당면 과제나 업무와 관련된 최근 동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자료조직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학생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지식기반과 기술을 연마하고, 실무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한국 자료조직 교육의 방향 모색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렵פות하게나마 알았으니 적절한 방향을 모색할 차례이다. 방향은 자명하다. 교육제도를 체계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이 글의 제목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교육이 가야할 방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것인가? 필자는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자료조직 교육이 왜 중요한가? 둘째, 자료조직 교과목에서는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자료조직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식기반과 실무기술은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국의 32개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자료조직 영역의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필수 교과목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우리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자료조직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복수전공’을 강조하는 우리 대학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교육의 환경이 변했다하더라도 우리 교육에서 이들 교과목의 비중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을 도서관 현장의 업무 행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가 기반하는 철학과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자료조직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도서관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이러한 경시 풍조가 곧바로 교육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자격조건에서는 여전히 자료조직 교과목의 이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이들 교과목을 이처럼 교육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간주해 온 이유는 이와 관련한 업무가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도서관의 업무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안내 도구를 만들어 그들에게 제공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자료조직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자 도서관과 사서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사서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²⁵⁾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도서관계에서는 고도의 지식기반과 직업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들 업무가 단순하고 기술적인 작업으로 폄하되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인 ‘장서’ 속에서 어떠한 원칙이나 사명감,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듯이, 목록이나 색인과 같은 서지도구를 생산하는 업무에서도 본질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주어진 형식에 따라 서지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관련

25) ALA 회장을 역임하였던 Michael Gorman은 “사서(cataloger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아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색을 위해 정보가 어떻게 조직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자료조직 교육이 왜 본질적이며 필수적인지에 대해 다음의 자료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Michael Gorman, “Why teach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4, No.1/2(2002), p.2.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사서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다. 자료조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주체자들 또한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논의할 것은 관련 교과목에서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즉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교육의 원칙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은 이론과 원리보다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는데 집중되어 있다. 가령,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편목 교육의 내용은 도서관목록이라는 '도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능적 지식을 주입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목록규칙의 적용이라는 '형식'을 집중적으로 숙지하게 하는데 할애되고 있다. '자료조직'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이고 철학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편목 교육은 당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지언정 철학과 이론을 겸비한 '진정한' 편목사서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자료조직의 이론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지 못한 피교육자들이 도서관 현장에 진출하면서, 편목업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며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일"로 평가절하되고 있고, 심지어 사서직의 기반을 뒤흔드는 편목업무의 아웃소싱 앞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도서관사상가들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도서관사상가인 버틀러(Pierce Butler), 셰라(Jesse Shera), 랑가나단(S. R. Ranganathan) 등은 우리 학문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도서관과 사서직의 철학과 원칙, 가치 등 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 탐구하고자 노력하였다.²⁶⁾ 이들은 학문의 본질뿐만 아니라 교육주체들이 교육을 통해 무엇을 실현해야 하며, 어디에 핵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도서관장서의 본질적 가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목록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거대한 문헌정보의 덩어리 속에서 이용자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들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사서의 철학과 지식기반이 합리주의(ration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 관리자정신(stewardship)이라 보았으며,²⁷⁾ 사서직 교육에서 특히 중요하

26) Michael Gorman, *Our enduring values: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Chicago : ALA, 2000), pp.19-24(Michael Gorman,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 이계환 역(대구 : 태일사, 2010)).

27) 이와 관련하여, 랑가나단은 본능적인 충동이나 감각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대신 사서직의 사고력이나 이성적 바탕을 두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사물을 처리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가령, 도서관의 장서는 "도서관이 봉사하는 커뮤니티에게 이 자료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데, 이와 관련한 사서직의 지식기반이 바로 '합리주의'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어린이, 여성, 노동자, 경제적 빈민층, 농촌거주자, 장애인 등이 모든 도서관자료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서직의 지식기반은 '민주주의'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기록된 정보를 잘 관리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과 관련된 사서직

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 또한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과 원리보다는 박제가 되어버린 죽은 지식을, 직업적 사명감과 역할보다는 기술과 기능을 중시하는 본말이 전도된 교육을 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잡아 준 물고기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고 찢절때는 '미숙련공'만 대거 양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능'과 '기술'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철학과 원리'를 중요시 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원리'를 터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논의할 내용은 바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일천한 필자에게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기반이 탄탄하고, 우리 학문의 원조가 되어 온 미국의 교육방식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문헌정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초교과목과 심화교과목을 분명하게 구분하되, 기초교과목에서는 보편적 적용을 강조하는 원리 중심의 교육(entry-level education)을, 심화교과목에서는 직무수행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기반하고 있는 철학과 원리에 대한 교육은 주로 기초교과목에서, 특정 영역에 요구되는 실무 능력은 심화교과목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교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심화교과목에 대해서는 영역별 전문트랙을 개발한 후 심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체제 속에서, 그들은 폭넓은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적용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예비사서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practicum)을 거친 후 도서관 현장에 진출한다. 도서관 현장에 진출한 후에도 고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고참' 사서에 의해 도서관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맞춤식 교육'이 다시 이루어진다. 도서관 현장에서 고참 사서들은 신참 사서들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명실상부한 운영주체로 자립하기까지 신참 사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대학에서의 원리 중심의 교육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실무 교육이 조화를 이루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의 사명을 '관리자정신'에 담아 이를 강조하였다. Michael Gorman, *op. cit.*

28) ALA에서 인증한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Introduction to Information Organization'이나 'Introduction to Cataloging & Classification'과 같은 기초교과목의 이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비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Sherry L. Vellucci, "Cataloging across the curriculum: a syndetic structure for teaching catalog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4, No.1-2(1997), pp.35-59. ; Daniel N. Joudrey, "A new look at US graduate courses in bibliographic control,"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4, No.1-2(2002), pp.45-62.

필자는 우리의 교육제도와 내용 또한 대학에서의 교육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교육 과정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대학에서의 편목 교육이 폭넓은 이론적 기반을 쌓아 다양한 적용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면, 현장에서의 교육은 편목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과 기능'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소전공학점제와 같이 오늘날 우리 대학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는 각 영역에 대한 기초교과목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에 대한 교육은 심화교과목이나 도서관 현장에서의 기초 훈련을 통해 배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원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실무와 현안 중심의 경험을 쌓아갈 때 비로소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교육문제에 대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 그리고 도서관협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적절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 현장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회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 적절한 조율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²⁹⁾ 이러한 '3주체'가 합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수립되고 교육내용이 개발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계도 현장도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V. 논의를 마치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교육기관은 국립조선도서관학교였다. 실질적인 도서관학 교육의 시작이라고도 평가받고 있는 국립조선도서관학교는 1년 과정의 전문 교육을 통해 우리 도서관계에 필요한 인물들을 배출해 내었다. 교육과정은 주로 당장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분류', '편목' 교과목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후 195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의 교육원조를 통해 도서관학이 대학 내에 학문으로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미국식 도서관학이 소개되었고, 국내 도서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도서관학을 배워옴으로써 우리 도서관학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토대에서 시작된 문헌정보학 교육은 토착적이기보다는 미국적이었으며, 실무 중심적이고 기능주의적이었다. 더구나 낙후된 도서관 현

29) 미국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육자의 98%가 교과과정 개발에 실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dy MacLeod and Daren Callahan, "Educators and practitioners' reply: an assessment of cataloging educ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39, No.2(1999), pp.153-165). 이처럼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장 사서의 의견은 현장의 발전을 물론이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장에 당장 투입할 사서를 교육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으니, 도서관의 가치나 철학보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³⁰⁾

그러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도서관학을 우리의 토양이나 문화에 맞는 자생력 있는 학문으로 거듭나게 만들려는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였다. 대학과정의 학문으로 성립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 연구자에 의한 개론서가 처음으로 출판되었을 정도로 우리 도서관학의 학문적 내용은 열악하고 영세하였다. 학문의 내용이 열악하고 영세하다보니 교육내용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장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사명과 가치는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만이 강조되었으며, 목록에 대한 철학적 기반조차 없이 도서관목록이라는 도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주입하는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편협성은 곧바로 우리 도서관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서의 ‘개발’과 자료의 ‘조직’에 토대가 되는 도서관의 철학을 제대로 모르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했던 것이다.

이것은 학문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50년 전의 상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문의 철학이 없으니 이론이 취약하고, 이론이 취약하다보니 곧 실행의 무원칙을 불러오고 있다”³¹⁾는 반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 이론은 없이 적용을 주로 하는 실무 위주의 경향”³²⁾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조직에 대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우리 학계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향후 자료조직 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에 대해 우리 학계와 현장 간에 폭넓은, 그리고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김성수.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1998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대회 자료집(1998. 6), pp.45-80.
- 김종성.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의 전략적 강조점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6), pp.135-159.

30) 노지현, 도서관목록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서울 : 한울, 2009), pp.195-196.

31) 박준식, 전개논문, p.76.

32) 심우준, “2000년전의 편목자들의 역할: 우리는 무턱대고 과거를 버려야 하나?” 국회도서관보, 제17권, 제2호(1980. 3), p.82.

- 노영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전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479-503.
- 노영희, 안인자.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변화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429-450.
- 노지현. 도서관목록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9.
- 박준식. “정보봉사의 속성과 철학적 기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6), pp.61-80.
- 박현영. “도서관 현장에서의 장서개발과 편목업무를 통해 본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 201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2010. 12), pp.25-39.
- 엄영애.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409-427.
- 이제환 등.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5. 12), pp.45-69.
- 이제환. “한국 문헌정보학에서 참고봉사와 정보봉사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12), pp.299-323.
- 정연경. “목록사서직의 자격요건과 목록교육의 방향 :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999. 8), pp.67-70.
- 정진식.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분석과 모형개발.” 국회도서관보, 통권218호(1991. 11·12), pp.3-63.
- 조재인. “차세대 목록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6), pp.127-145.
- ALA. *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 Final version(2009),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careers/corecomp/corecompetences/finalcorecompstat09.pdf>> [cited 2010. 11. 15].
- ALA.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Council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8.
- ALCTS(Association for Library Collection & Technical Services). *Educational policy statement*, 1995,
<<http://www.ala.org/ala/mgrps/divs/alcts/about/governance/policies/cepolicy.cfm>> [cited 2010. 11. 15].
- Davis, Jane M. “A Survey of Cataloging Education: are library schools listen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46, No.2(2008), pp.182-200.
- Gorman, Michael. *Our enduring values: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Chicago : ALA, 2000.

- Gorman, Michael. "Why teach cataloguing and classific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4, No.1/2(2002), pp.1-13.
- Hall, Russell A. "Exploring the core: an examination of required courses in ALA-accredited."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27, No.1(2009), pp.57-67.
- Hoffman, Gretchen L. "Meeting Users' Needs in Cataloging: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47(2009), pp.631-641.
- Joudrey, Daniel N. "A new look at US graduate courses in bibliographic control."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4, No.1-2(2002), pp.45-62.
- MacLeod, Judy and Callahan, Daren. "Educators and practitioners' reply: an assessment of cataloging educ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39, No.2(1999), pp.153-165.
- Markey, K. "Current educ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5, No.4(2004), pp.317-339.
- Saye, Jerry D. "Where are we and how did get here? or, The changing place of cataloging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causes and consequenc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4, No.1/2(2002), pp.121-143.
- Vellucci, Sherry L. "Cataloging across the curriculum: a syndetic structure for teaching catalog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4, No.1-2(1997), pp.35-59.

